



추억의 바다를 향해할 거야! 거제 이수도

류형근 여행작가

▶ 여행이란

여행이란 요즘의 여행이란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십 수년 전 나의 예전 여행은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도 없었고 책이나 신문, 잡지를 통해 얻은 여행지식을 가지고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 지나친 의욕을 불태우며 한곳도 빠뜨리지 않고 눈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여행을 하곤 했다. 요즘의 내 여행은 부지런한 사람의 일상이 되어 있다.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나고, 서점의 여행코너에는 신간이 쏟아져 나와 어디를 가야 하는 것부터 고민을 더한다. 아무래도 요즘 여행의 트렌드는 '힐링'이다.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며, 나를 만나는 시간인 것이다. 현대인의 일상은 달리는 말 위에서 속도를 내라고 쉽없이 채찍질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일하고 소비하라고 한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당근이 필요하다. 그것이 여행이다.

▶ 물이 이롭게 한다. 거제 이수도

겨울이다. 경상남도 남쪽의 섬 거제시 이수도 선착장에서 만난 겨울은 남쪽 해풍 때문인지 쌀쌀하긴 하지만 코끝에 닿는 겨울공기가



▲ 이수도 전경



▲ 이수마을 표시석



▲ 이수도 어촌체험마을



▲ 자망체험

머리를 맑게 하는 청량제와 같다. 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고 아름다운 곳으로 황홀한 소리로 매혹하는 흑진주 몽돌해변, 봄을 알리는 동백꽃, 외도의 아름다운 정원으로도 유명하지만 낚시꾼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 거제시 이수도이다.

거제도 장목면 시방리에 속한 섬으로 거제 대금산에서 바라본 이수도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소록소록 잠을 자는 아기와 같다고 한다. 섬으로 가는 길은 시방마을 선착장에서 배를 타면 바로 섬이 눈앞에 보이고 어하는 사이에 도착한다. 원래 이수도를 이물도학섬이라고도 한다. 섬의 모양이 두루미를 닮았으며 바닷물이 사람을 이롭게 한다하여 '이수도'라 이름을 붙였다. 섬의 건너편 시방마을 쪽으로 뻗은 곳에 입항할 수 있는 선착장이 있고 그 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43세대에 8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나머지 해안은 암석해안으로 바다낚시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 유년시절의 추억

이수도에는 섬펜션도 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개인민박도 있지만 이수도 어촌 체험마을에서 폐교를 개조해 민박형태로 운영하는 숙소는 유년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또 다른 재미와 즐거움이다. 바다가 한 눈에 바라다 보이는 이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아이들은 이제 다자라서 어른이 되고 퍽퍽한 도시생활을 하다가 아련한 기억 속에 있는 유년시절을 종종 떠올릴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움으로 추억될 이곳에 숙소를 잡고 짐을 풀었다.

▶ 이수도를 즐기는 방법

섬에서 바다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수도에서 바다를 즐기는 방법으로 첫째로 손꼽는 것은 선상낚시이다. 이수도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30cm가 넘는 감성돔이 잡히고 볼락도 많이 잡히는 것으로 유명하



▲ 여행의 맛



▲ 문어단지체험



▲ 이수도와 시방마을

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다낚시가 장비도 갖추어야 되고 초보자가 쉽게 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물론 대부분 장비를 갖추고 낚시를 해야 되지만 간단한 줄과 낚시 바늘, 미끼만 있어도 심심치 않게 손바닥만 한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수도 앞 선착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해상펜션 세 개 동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서 그곳에서 낚시와 숙박도 겸할 수 있다.

또 하나 이수도에서 바다를 즐기는 방법은 자망 체험과 문어 단지 체험을 들 수 있다.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10분 정도 가면 하얀 부표가 있는 곳에 배가 멈춰 선다. 특히 날이 쌀쌀하고 바람이 불 때에는 옷을 든든히 입고 가야 한다. 육지의 바람과 배에서 맞는 바람은 사뭇 다르다. 자망 체험은 주먹보다도 큰 돌을 건져 올리면서 시작된다. 자망 체험을 해주신 분들은 부부셨는데 아저씨는 배를 운전하시고 선원 한 분이 그물을 끌어 올리면 아주머니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그물에서 재빨리 떼어 내신다. 함께 간 몇 사람도 처음엔 그물에 걸려 나오는 물메기에 놀라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아주머니를

따라서 연신 물고기를 떼어내고 신기한 듯 기념촬영을 하기도 한다. 30분가량 짧은 시간이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의 수확은 큼지막한 물메기가 가장 많이 잡혔고 불락 등도 보였다.

문어 단지 체험은 배를 타고가 이수도 측면 암반들이 조금 멀리 보이는 곳에서 시작한다. 운이 좋게도 파도가 높지 않아서 수월하게 문어 단지를 끌어 올린다. 문어 단지는 항아리 모양의 작은 단지를 끌어 올리면서 시작하는데 한 번에 100개~150개의 단지를 아무런 미끼 없이 던져둔다고 한다. 그러면 문어는 그곳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고 건져 올리면 되는 것이다. 단지들을 줄은 맞추어 쌓으면 영화 '에어리언'에서 괴물이 등장하듯 단지에서 불쑥 나와 배의 바닥을 제집 마냥 기어 다닌다. 시장에서만 보던 문어를 실제로 만져 보니 역시 빨판의 힘이 대단하다. 단지를 다 건져 올리니 5마리의 문어가 잡혔다. 참고로 자망 체험이나 문어 단지 체험에서 잡힌 물고기와 해산물들은 집으로 가져가거나 숙소에서 바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

▶ 여행의 맛과 멋

숙소에 도착하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며 신호를 보낸다. 저녁상을 보니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방금 전 자망 체험 때 잡은 불락으로 회를 뜨고 이 계절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물메기 회가 새콤달콤하게 무쳐 나왔다. 또 갓 잡아 올린 문어로 숙회를 만들었다. 도미구이, 생굴, 미역무침, 툷 무침, 파무침, 매운탕



▲ 산토리노와 같은 집



▲ 빨래줄에 걸린 물메기

으로 바다내음 가득한 한상이다. 특히 문어숙회는 씹는 맛도 굉장하고 쫄깃한 식감이 이만저만 좋은 것이 아니다. 입이 호강을 한다. 이렇게 배가 부르도록 문어숙회와 자연산 횡감을 먹을 수 있어서 여행의 맛을 더한 오감만족 여행이다.

다시 운동장으로 나와 하늘을 본다. 별들이 구름 사이로 살짝 고개를 내민다. 선착장과 마을을 가로 지르는 길을 따라 산책을 나온다. 같이 온 일행들 중에 “언제가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을 하니 “나중에 꼭 눌러 올게” 하며 장단을 맞춘다. 여기 어촌마을 사무장님께 들으니 이곳에 들레길도 만들고 큰 사슴농장도 만들어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만약에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해도 때가 묻지 않은 섬의 자연과 환경이 보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돌아오는 길의 섬은 마법에 걸린 것처럼 한없이 조용하기만 하다.

아침에 해뜨기 바로 전에 섬 전체를 둘러 볼 양으로 한 시간 남짓을 천천히 걸어서 돌아본다. 산언덕 위에 알록달록한 집들이 모여 있고 그 보다 위 언덕에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햇살을 받고 서있다. 교회를 지나 언덕에

오르면 이수도 마을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곳 섬을 두 장수가 지키듯 선착장 양쪽에는 등대가 서있고 아침부터 배들은 바쁘게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

멀리 건너편에 시방마을이 보인다. 이수마을과 시방마을에는 비석에 얽힌 사연이 있다. 이수도와 시방마을은 학과 활의 모양을 하고 있어 풍수지리로 볼 때 서로 겨누고, 막아야만 하는 운명 속에 놓여 있었다고 전한다. 원래 이수도는 주변이 황금어장이고, 물도 풍부하여 시방보다 훨씬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건너 마을 시방에 비해 고기도 덜 잡히고 살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때마침 풍수지리에 능한 도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이수도의 학이 시방의 화살에 맞아 죽는 형국이라 방패에 해당하는 비석을 세워 막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일러 주었다. 그 말대로 이수도 사람들은 시방의 화살을 막는 방시순석을 마을 뒷산에 세웠다. 그러자 정말 이수도는 부자가 되었고 이번에는 시방마을이 쇠락해 가는 것이다. 이수도에 비석이 서고부터 시방이 가난해졌다 하여 시방사람들은 이수도의 비석을 부수려 했으나 이수도 사람들이 시방 사람들을 섬에 얼씬도 못하게 막았다.



그동안 다정하게 지내오던 두 마을은 이때부터 원수지간이 된 것이다. 고심 끝에 시방에서는 이수도의 비석을 뚫을 수 있는 쇠 화살을 쏜다는 뜻의 비석을 세웠다. 이것이 지금도 남아 있는 방시만노석이다. '만노'란 쇠로 된 화살을 말한다. 이렇게 되자 처지는 또다시 바뀌었다. 결국 이수도에서 쇠 화살을 막을 방시만노순석을 원래의 방시순석 위에 덧세웠다는 이야기이다. 조선 말엽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비석이 이수도와 시방마을에 있다고 한다.



▲ 아침식사 물메기지리탕

마을로 내려오면서 보니 물메기를 빨래처럼 걸어 놓고 햇볕에 꾸덕꾸덕 말린다. 밥 한 그릇 푹푹 비울 국이나 빨간 양념에 무쳐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노랑고 하양고 푸른색으로 칠한 담벼락을 따라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니 산토리노가 부럽지 않게 아름답더라. 숙소로 돌아오니 아침상이 차려있는데 신기하게도 마을을 내려올 때 보았던 물메기 그 녀석이 맑은 탕으로 나와 시원함을 더한다.

혁명이 체게바라가 사랑했던 쿠바의 시인 니콜라스 기옌은 그의 시 중에서 “언제였어? 모르겠어. 추억의 바다를 향해할 거야”라는 구절이 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을 이 여행에서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 거친 세파도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새겨본다. 부지런한 일상 중에 다시 여행을 떠날 그날을 기약하며... 🚤

가는 길

- ♣ 이수도를 갈 수 있는 시방마을 선착장은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제대교를 건너면 5분 남짓에 도착한다. 하루 6번의(동절기) 배가 왕복한다.(첫배 7:50 막배 15:50)

숙박

- ♣ 이수도의 해상펜션은 1박에 200,000원이며, 자망체험과 문어단지체험은 5인기준 200,000원이다. 선상낚시와 여름철에는 갯벌체험도 할 수 있다.
- ♣ 이수도 대표 숙박시설로는 이수도 어촌체험마을(010-6773-6244 김금란 사무장), 이수도 섬펜션(055-636-8919)과 개인민박도 있다.